



해외

WORLD

아시아 국가 사찰방문객 수 급증

심리적 불안 불교 신행으로 해소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불교 신행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싱가포르 발 보이더 통신은 최근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사찰과 교회를 찾는 아시아 국가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국가에서는 불교센터에서 명상 수업을 듣거나 사찰을 방문, 또는 점성술에 의지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9년 1.4분기 실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됐다. 싱가포르 아마타파 불교도 센터는 "센터의 명상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20% 가량 늘었다"며 "사람들이 경제불황으로 평화와 안정을 얻는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10.24%를 기록한 대만에서도 타이베이 지역의 명 사찰인 신헌궁(行天宮)의 방문객이 증가했다. 보이더 통신은 "이곳 대만 사

찰에는 매일 약 200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대나무를 뽑아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는 중국 전통 점성술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도 4년간의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에 치명타를 입어 지난해 보다 사원을 찾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방콕 한 사원의 관계자는 "사람들이 일자리, 복권 당첨, 애정 운세 등 갖가지 종류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원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 10년 새 10배 증가... 네덜란드서 3위

맹목적 수용 비판 목소리도 나와

네덜란드에서 불교가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음의 종교로 자리 잡아 눈길을 끈다. 네덜란드 영자신문 NIS News Bulletin에 따르면 "불자 증가 추세가 이슬람교에 필적해 왔었다"고 보도했다. NIS는 인구가 1600만 명인 네덜란드에서 25만 명의 백인이 불교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순수 네덜란드인 4000명과 아시아 이민자들 중 불

자를 합해 1만 6000명이었던 1998년에 비하면 놀랄만한 양적 팽창이다. 불교의 인기가 굳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불교의 맹목적 수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신문 더 폭스크란트(De Volkskrant)는 "이슬람교 확산이 네덜란드 민주주의 영화제 작자인 기어트 윌더스(Geert Wilders)에 의해 위협적이며 폭력

과 타협한 집단주의로 여겨지는 동안 불교는 개인적인 믿음과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로 비춰진다"며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 긍정적 이미지는 재고해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틸버그 훔화대학의 푸르투이(Poorthuis)와 잘리밍(Salemink) 박사는 최근 발간한 <Lotus in the Low Countries>라는 책에서 불교의 이면에 대해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나은 기자

스트레스 해소에 불교가 최고!

세계적 모델 케이트 모스 불교에 심취

영국출신의 세계적인 톱모델인 케이트 모스(35)가 마음의 휴식을 위해 불교에 귀의했다. 영국의 종합연예뉴스 전문 사이트 엔터테인먼트와이즈(Entertainmentwise)는 "케이트 모스는 그녀의 아파트에 청동불상과 종교 서적을 구입해 모셔왔다"고 게재했다. 사이트는 "그녀는 샌달우드향

이 나는 향을 올리고 친구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케이트의 한 지인은 "케이트는 명상과 불교를 배움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기를 원하며 이러한 활동이 곧 차분하게 하는 방법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이즈는 "케이트는 올랜도 블룸, 골디훤 등 불교에 심취한 유명인사



케이트 모스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임종간호 승·속 함께 해야 '효과'

배출된 인원 실무 투입 드물어... 활동 공간 확보 시급

5월 21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존엄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을 놓고 가톨릭과 개신교계는 신속히 입장을 표명했지만 불교계는 공식입장은 커녕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마저 빛나는 양상이라 입장 마련이 시급하다. 때문에 죽음의 시기를 저울질하기보다는 임종간호(호스피스)를 통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교에서는 임종 시 마음가짐에 따라 내세(來世)가 결정된다고 본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들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임종간호 서비스를 찾는다는 하지만 정작 불자들은 임종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봉사자 지원 서비스가 이웃종교로 부터 도움 받는 경우가 많다. 불교계 임종간호 전문기관 강선희 보살은 "10년간 임종간호 활동을 해오면서 불교계 임종간호 교육

양성 및 시설이 이웃종교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몸소 느꼈다"고 말했다. 현재 교계의 임종간호 전문시설로는 정토마을이 유일하다. 교육기관으로는 정토마을, 생활의례문화원 연화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자원봉사단 청주지부 아마타 호스피스회, 천태종 복지재단 니르바나 호스피스 등 15개 기관 및 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교에서는 임종 시 마음가짐에 따라 내세(來世)가 결정된다고 본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들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임종간호 서비스를 찾는다는 하지만 정작 불자들은 임종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봉사자 지원 서비스가 이웃종교로 부터 도움 받는 경우가 많다. 불교계 임종간호 전문기관 강선희 보살은 "10년간 임종간호 활동을 해오면서 불교계 임종간호 교육

호스피스 기관이 적어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공간이 적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호스피스 병원기관을 살펴보면 가톨릭·개신교계는 84개에 달하지만 불교계는 동국대병원과 교계 교육시설을 연계한 병원 15곳이 전부다. 임종간호를 원하는 이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교계의 임종간호 활동에 대한 무관심과 스님들의 적극적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종간호 봉사를 수년간 해온 한 봉사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 중 스님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일부 스님들 중에는 임종법문을 하기보다는 임종 후의 49재나 장례의식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스님들이 신도와 환자들에게 임종관을 확립시키고 임종간호를 홍보해야 불자들을 임종간호로 연계시킬 수 있다"며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답답한 세상
노들축제서 시름 잊자
본동복지관 6월 13일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중성)은 6월 13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 대화합 한마당' 제9회 노들축제를 실시한다. 축제 중 대부속중학교 소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식전행사 및 기념식)와 2부(지역주민 대화합 한마당)으로 구성돼 진행되며 지역 어르신들께 다양한 공연과 음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제9회 노들축제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관계 및 효(孝)사상을 고취시키고, 경기침체로 인한 힘겨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오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당부했다. (02)817-8052 이나은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집 생명나눔 캠페인 전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원 사업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생명나눔은 5월 대학축제시즌을 맞아 5월 19·20일에는 성균관대학교(서울), 22일에는 서울시립대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활동으로 성균관대에서는 100여 명이 기증을, 서울시립대에서는 60명이 기증한 가운데 이상범 서울시립대 총장은 장기기증 회담을 서약하기도 했다. 생명나눔 관계자는 "2009년 4월 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자 수는 18만 명이다. 비 혈연간 조직이 적합한 환원이 일치할 확률이 수만분의 일인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기증희망 등록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캠페인 취지를 밝히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마음으로 나누는' 경로잔치

경북연이 개최한 '마음으로 나누는 세상' 경로잔치에서 어르신께 공양을 올리는 상임대표 법등 스님(왼쪽에서 두번째).

몇 년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경계정의 실천불교시민연합(상임대표 법등·이하 경북연) 자비의 집이 5월 22일 '제1회 마음으로 나누는 세상'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서울 중구 신당 제3중 주민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 700여 명이 참여해 점심 대중공양, 연예인 초청 공연, 참석자 전원에게 선별 증정식을 가졌다. 법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보살행이 전해졌으면 하는 뜻에



경북연이 개최한 '마음으로 나누는 세상' 경로잔치에서 어르신께 공양을 올리는 상임대표 법등 스님(왼쪽에서 두번째).

아동미술 큰잔치 사회복지재단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은 5월 27일 조계사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원에서 불교 계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불교 아동미술 큰잔치'를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사찰주변의 풍경을 그려왔으며, 사회복지재단에서 마련한 △합장주 만들기 △페이퍼스케인팅 △매직폰선 만들기 체험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어린이들은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 들러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위해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6주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기출, 습관, 성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 032)349-0666/FAX 032)349-0665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1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종도모집 안내

대한불교 선밀종

밀(密)로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하며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본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중진 간부스님 및 사부대중을 모집합니다

식품사업부 지사 및 대리점 모집

국제 / 국내 특허제품 다수 보유. 건강식품 및 음료사업 유경험자

(주)자운 식품사업부 문의 : 053)311-2675, 2676
www.jawoonfood.co.kr

"출판 사업부"에서는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大韓佛敎禪密宗 대한불교선밀종
www.sunmiljong.or.kr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 / FAX 053)311-2634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 (2-3층)